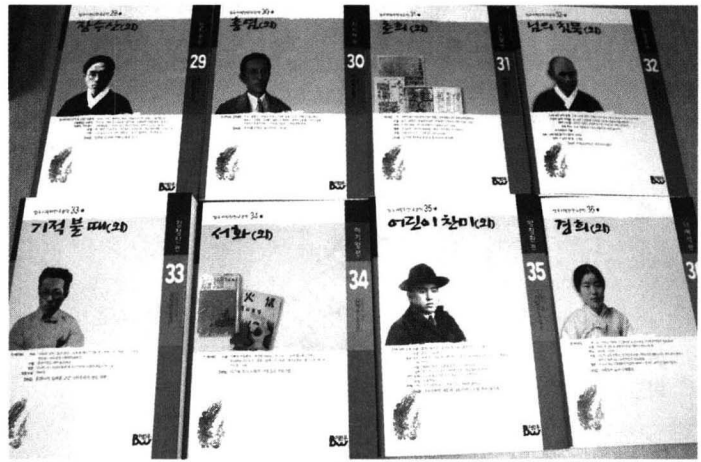


## 21세기 새롭게 시도된 '한국문학 원본 확정'

# 범우사 <비평판 한국문학선>

### 당대 문학사 중요 작가 총망라, '현재 인지도와 무관' '문학 통한 민족 정신사의 총체적 반영 시도'

범우사의 <비평판 한국문학선>은 최근 <경희(외)>라는 나혜석 편을 36번째로 출간했다. 문학전집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출판사에서 문학전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범우의 비평판 한국문학은 21세기 들어 새롭게 시도되는 한국문학의 원본 확정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시리즈를 기획한 임헌영 편집위원은 "30대부터 이 시리즈의 출간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해왔다"며 "한국문학전집의 정전(正傳)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비평판 한국문학선>은 문학의 개념을 민족정신사의 총체적 반영으로 확장했다.

일반적으로 문학전집의 구성은 유명한 작가들의 대표작들로 이루어진다. 알려지지 않은 작가나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한 작가의 작품은 전문 연구자가 아닌 이상 찾아 읽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범우의 <비평판 한국문학선>은 유명 작가의 대표작들로만 한국문학을 말할 수 있다는 이 종래의 고정관념부터 깬다.

문학의 개념을 단순히 시, 소설에 국한하지 않고 민족정신사의 총체적 반영으로 확장한 것이다. 출간을 기다리는 <비평판 한국문학> 중 근대 가사집 <홍도야 울지마라>의 경우, 근대의 유행가 가사를 문학전집에 포함시켰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비평판 한국문학>의 1권은 이광수나 김동인 편이 아닌 <백세 노승의 미인담>이라는 생소한 소설이 들어간 신채호 편이다. 한국문학사에서 친일문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채호를 근대문학의 시금석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한 임헌영 편집위원의 설명은 종래의 통념을 깨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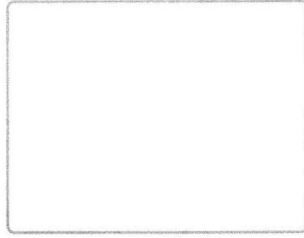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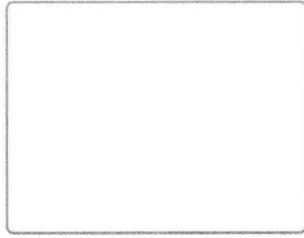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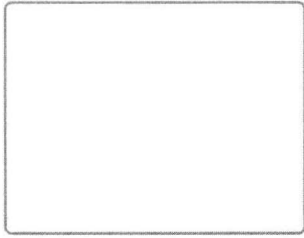
"이광수가 근대문학의 아버지라는 공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문학사적 변화를 살피지 않고는 한국문학을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를 1권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

명하든 안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당대의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든가, 당대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작가라면 다 포함시켰습니다."

### 양건식, 채독견, 김영팔...주류 문학사서 소외된 작가 대거 등장

기존 한국문학전집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양건식, 현상윤, 채독견, 김영팔 등의 작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들은 모두 당대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으나 후대로 오면서 그 존재 여부조차 망각된 한국문학사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작가의 이름도 생소한 터에 그들의 작품을 찾아 책으로 엮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확한 원본 확정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각 권마다 편집인이 다른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편집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책임편집과 더불어 각권의 말미에 있는 비평문도 그 편집자들이 직접 집필한 것입니다. 입력과 교열도 박사 과정급 이상의 전문연구자가 맡아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임현영 편집위원

편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가의 작품을 찾고 그것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일이었다. 당대에 출판된 신문이나 잡지, 서적 등에 실린 작가의

작품들을 찾아 입력하는 것은 전문가의 감식안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고어를 현대어로 바꾸지 않고 원전 그대로 입력했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위해 일일이 각주까지 달아야 했다. 그러다보니 책 한 권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정도.

시간과 비용이 다른 전집에 비해 배가 드는 이 기획에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문학사적 가치는 충분하지만 “잘 팔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도 문학전집의 정전을 만들겠다는 임 편집위원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고, 그 소망은 범우사의 윤형두 대표를 만나면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21세기 한국문학 진로 모색의 출발점’ 자부

비평판 한국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작가 중심 편집이다. 장르에 관계없이 작가가 쓴 시, 소설, 수필, 일기, 편지, 정치평론, 기행문 등을 모두 포함해서 편집함으로써 한 작가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모인 작품은 반드시 ‘1-1’ ‘3-1’ 하는 식으로 ‘다시 1’ 이란 번호표를 달고 출간되는데, 이는 해당 작가의 자료가 더 모이면 -2, -3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임 편집위원의 설명이다.

“이 작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출간이 가능하다는 것입

니다. 그렇게 -1, -2, -3이 붙은 몇 권의 책이 모이면 그 자체로 작가의 전집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리즈에 포함시키려고 기획하고 있는 작가는 대략 100여 명 정도. 모두 1945년 이전의 작가들이다.

“1945년 이전의 문학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어서 작가 선정에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1945년 이후의 작가들은 아직 문학사가 정리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비평판 한국문학>은 우선 해방 이전의 문학사를 중심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 책 한 권에 3~4년 걸리기도...최종 100여 명 수록 목표

일단 올 연말을 목표로 50권까지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작가들이 많아서 그 성사를 확신할 수는 없다. 작가의 작품이 한 권 분량보다 많은 경우는 해당 작가의 책임편집을 맡은 편집자가 적당한 작품을 선정하면 되지만, 작품의 분량이 적은 경우가 문제다. 그런 경우 자연히 출간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15권 <급장칼(외)>의 김영팔 편은 출간되기까지 3~4년이 걸리기도 했다. 김구나 여운형 편도 기획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남긴 글을 찾아 한 권의 분량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힘들게 만들어진 만큼 많은 이들에게 ‘한국문학전집 하면 범우(비평판 한국문학)’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는 임 편집위원은 “대중적인 문학전집에만 쏠리는 요즘의 세대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대중화된 문학전집도 필요하지만 ‘정전’이라 불릴만한 전문성을 지닌 문학전집도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비평판 한국문학>은 민족정신사를 이룬 작품이 망라된, 21세기 한국문학의 진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학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취재\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